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10~120주년
포여

함께 하는 생명의
장막을 넓히자

1963년9월20일 第3種郵便物認可 (毎月一日発行)

2021년 6월 1일 (화) 제 80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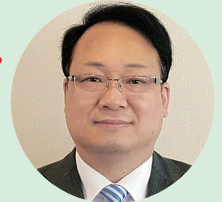
발행처 **복음신문사** (1부 100엔)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03-3202-5398 info@kccj.jp
발행인/ 조영철 · 편집인/ 김병호
인쇄소 靑丘文化社

어린이주일
설교

현대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영원에 이르는 축복의 계약, 아이들에게 반복해 가르치라

<신명기5장10절/6장 5-9절>

김명균 목사 (교육위원장 / 나고야교회)



현재 코로나로 인해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염 예방 대책으로 마스크·손씻기·가글은 물론 동아리의 활동 제한 등. 이전처럼 친구들과 마음껏 놀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혹시 코로나에 걸리면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더불어 밖으로 나가는 일도 적어지고 좁은 실내에서 형제 간의 다툼이나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는 일도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 수년 전의 일입니다만 아내의 친구가 오사카시의 보육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놀랐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보육원에서는 도시락을 싸와서 먹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도시락 만드는 방법을 어머니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빈곤한 지역을 담당하는 보육사는 원아의 부모도 빈곤과 육아 포기 등의 가정에서 자랐고 자신도 도시락을 만들어 받은 적이 없었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이 있었고 무엇인가는 먹으며 생활하고 있었을 가정의 부모가 도시락을 만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좋을지 모르는 부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빈곤이나 육아 포기를 마치 대물림하는 부모가 있는 것처럼 폭력과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자신도 그런 부모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연쇄의 고리는 3대를 이어가는 일도 있어 같은 환경에서 70% 가까이가 학대를 물려받고 있으며 그 중 일본에서만 연간 60명 정도가 학대사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어린이지원협회 2020.07.21통계)

이와같은 코로나 스트레스와 나쁜 연쇄 대물림 속에서 현대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천대에 걸친 축복의 계약이 신명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많은 애를 쓰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시락을 만들면 좋을지 모르는 것과 같은 상태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의 육아와 관련된 책이 10여년 정도 전에 유행 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수험사회에 진저리난 학부모들이 몰래 읽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율법학자와 같이 세세한 율법을 지키고 있어도 가장 중요시 여겨졌던 하나님 사랑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아무리 다 른 구체적인 세세한 율법을 다 지킨다 한들 의미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에 서서 때로는 유연하게 대처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선을 행하고자 원해도 할 수 없는 것은 죄 때문이라 말 했듯이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모인 자신도 하지 못하는 일을 자녀에게 떠 넘기거나 강요하지 말고 함께 성장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 어른들에게도 많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에 있어서는 아이들의 상태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좋은 모범이나 상속, 신앙의 계승을 시키고자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정적으로 화를 낸다거나, 반대로 칭찬만을 하다가 꾸중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오히려 주눅이 들거나 침울하게 만들어 버리게 되

어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용서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을 감정적으로 화를 내어 버리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칭찬 할 때는 칭찬하되, 꾸짖을 때는 꾸짖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의 신명기에도 십계명의 내용과 관련해 힘써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양쪽 모두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빈곤이나 육아 포기 학대는 아이들 본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가족이나 신앙의 가족인 교회의 우리 어른들이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이며, 그것은 연쇄되어 가기 쉽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계약 또한 천대에 이어진다고 하는 것의 놀라움을 알고 있는 우리가, 계속 반복하여 교육시켜 가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즘 서점에 진열되어 있는 그림책 「소년 두더지 여우 말」 가운데 “지금까지 당신이 한 말 중에 가장 용감한 말은?” 이란 질문에 “도와 주세요!” 라고 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른들은 약하고 가난해 보이기 싫어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 육아를 포기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기 원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도와 주기를 바라는 등, 용감하지 않더라도 “도와 주세요!” 를 좀처럼 말하지 못합니다. 또 한 이 책 속에는 “도와 달라는 것은 포기하는 것과 다르다. 포기하지 않기 위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도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희망을 실망으로 바꾸지 않으시는 주님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 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일 강했던 것은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함을 보일 수 있었을 때」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도 자신을 온전히 비워 주님 앞에 항복했을 때, 약점을 보였을 때, 「약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잘못된 교만함을 내려 놓을 때, 하나님의 개입과 행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모와 어른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를 믿는 우리들은 악순환의 사슬이 아닌 축복의 사슬을 계승해 나아가야 하는 것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 「도와주세요」 를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며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말을 건네며 스트레스를 자기 입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거나 이야기를 들어주되, 어떤 해결이나 답을 부모가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자신 스스로가 길, 진리, 생명, 답(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하게끔 이끌어 주거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함께 기도하자 라고 손잡아 줍시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천대에 걸친 축복의 이 계약은 천대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를 간절히 바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풍성한 복을 받아 그것을 누리며 계승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맥인도목사 소천 20주년 특집

아버지, 麥仁道의 20주기를 맞아

데이비드·매킨토시

6월7일은 아버지 麥仁道(맥인도)의 기일입니다. 올해로 20주 기입니다. 40년 목사의 생애를 제일대한기독교회 형제 자매와 함께 걸어왔던 어머니 麥仁壽(맥인수)를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모르는 분들이 늘어면서 이 지면을 빌려 어머니의 근황을 포함하여 전해드립니다.

아버지는 신도 교육과 청년 선교에 열정을 품은 젊은 목사로서 신학교를 졸업한 1961년에 어머니와 아직 한 살이 안된 저를 데리고 일본에 왔습니다. 도착에서 일년 이상 먼저 도쿄에서 일본어를, 그리고 서울에 가서 한국어 학습에 돌진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오면서 교토교회에 파견 받았는데 그곳에서 여동생 자넷이 태어났지만, 내가 철이 들 무렵에는 오사카에 있었습니다. 일요일에는 쓰루하시역 근처에 있던 목조 건물의 오사카교회에 다녔고, 오사카여학원 일각에 있던 집에서 매일 같이 목사님과 장로, 여성회 분들이나 청년회의 형님들, 누나들을 맞이하던 생활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또한 누구라도 사랑하는 자세로, 누구와도 밝게 대화하고 잘 웃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일대한기독교회에서 아버지의 활동에 대해서는, 그와 함께 걸어오신 여러분이, 또한 지문 날인 거부 운동과 그의 재판에 대한 것은 그 활동을 지원하신 여러분이 저보다 정확하고 신중하게 말해 주시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역에서도, 개인 생활에서도, 어려움을 해결할 때도, 즐거울 때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심장병을 앓아 두번의 수술을 마친 후에도 속도는 약간 떨어졌지만, <열심히>의 자세가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로하여금 의를 향해 걸어가게 한 것은 어려운 철학이나 이론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형제 자매에게서 배우는 <사랑>과 스포츠에서 말하는 <페어 플레이> 였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가장 사랑한 성구는 미가서 6:8였습니다.

2001년3월, 40년의 선교사 생활을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간

3개월 후, 부모의 은거 생활이 이제 시작되려 할 당시에 병세가 악화되어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 그 며칠 전에는 의사의 조언을 듣지 않고 휠체어로 캐나다 장로교회 총회에 참석하여 힘을 다하여 "신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신도 교육·신도 리더십에 열정을 품고 일본으로 향하였던 그때의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비디오를 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일 한국인과 캐나다 친구에 둘러싸여 그의 병실에서 짧은 성찬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성찬식을 마치고 모두가 방을 떠날 때, 아버지는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You're now part of the subversive Gospel!" (당신은 이제 파괴적인 복음의 일부입니다.). 아버지가 좋아했던 야구의 표현을 사용한다면, 첫 번째 말은 직진, 두 번째는 변화구입니까? 본인에게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만, 반드시 "불의의 파괴에 노력하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일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면서 제일대한기독교회 여러분과 마이너리티 선교 센터를 지원하는 여러분과 함께 '파괴'의 행보에 힘쓰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85세가 된 어머니는 현재 밴쿠버의 리타리아멘토 홈에서 근처에 살고 있는 두 명의 여동생 자넷과 로그인이 돌보고 있는 가운데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눈, 허리, 심장, 기억력 등에는 쇠약해 있지만, 기쁘게 밝은 성격은 동일합니다. 가능하다면 꼭 코로나 위기가 지나면 또 일본에 오고 싶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신문 2001년7월 기사에서

제일동포와 함께 40년동안 걸어온 매킨토시목사가 소천

제127회 캐나다장로교회 총회가 지난 6월3일~8일에 토론토 요크대학에서 500여명의 총대가 모인 가운데 열렸다. 본 총회에서는 총회장 김덕화목사, 부총회장 김철두장로, 전국여성회회장 정정자권사 등 5명이 참석하였다.

우리 일행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은 위급한 상태로 입원 중에 있는 맥인도목사가 총회 기간중인 5일에 있을 은퇴식에 본 총회가 준비한 감사패와 위로금을 전달하는 자리에 출석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순서에 따라 5일에 본 총회 대표 일행이 소개되고 환영을 받은 후 총회장의 인사가 캐나다장로교회의 총회장인 데이비스목사의 통역으로 있었다.

모두의 기도가 응답된 듯 총회장소에 맥인도목사가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여 전 총대원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등장하여 감격 속에 은퇴식이 거행되었으며, 본총회장의 감사패를 전달하고 여성회장의 인사와 예물증정이 있던 후, 맥인도목사가 10분 정도의 감사인사를 하였다. 맥인도목사가 회장을 떠날 때 온 회중의 박수가 그칠 줄을 몰랐다. 총회기간 중 하이라이트라고 모두가 말하였다고 한다.

우리 일행은 그 길로 맥인도목사와 함께 병원으로 가서 데이비스목사 부부, 앤더슨목사 부부와 함께 맥인도목사의 소원에 따라 성찬식을 엄숙히 거행하고 돌아왔는데, 7일 아침 숙소에서 맥인도목사가 새벽4시20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것이다. 우리는 놀라움과 아쉬운 마음으로 병원으로 달려가 유족들을 만나 위로하였다. 8일의 전야예배는 낙산장로교회에서 김덕화목사의 사회와 설교, 김철두장로의 기도와 데이비스목사의 축도로 거행되었다. 맥인도목사의 수의는 유학 중에 있는 정수환 전도사가 16일의 결혼식에 입고 주례를 해 주시라고 지어온 한복을 입혀드렸으며 맥인수사모도 한복을 입었다.

9일 오후의 고별식은 데이비스목사의 설교와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성가대가 민족 의상인 치마저고리로 차려 입고 나와 시편23편의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등을 찬양하여, 일생을 차별받는 소수의 한민족이 당하는 고난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청춘을 불살라 소화시키고 가신 맥인도목사를 추모했다.

맥인도목사의 얼굴은 밝고 웃는 모습이었고 고요히 잠들어 있는 듯했다. 유언에 따라 화장을 하게 되었고 유골은 다섯으로 분골하여 고향인 Gulfe와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오사카KCC, 서남KCC, 그리고 나가노현 노지리호수 별장 주위에 뿌리기로 하였다.

맥인도목사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마치고 떠나갔으나 믿음을 통하여 지금도 아니 앞으로 오고 또 오는 세대를 통하여도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뿌린 사랑의 씨앗들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는 그를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맥인도목사와 장남David, 장녀Janette, 차녀Mira(양녀), 삼녀Gwyneth 가족 위에와 그를 사랑하고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모든 이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

맥인도목사님 편히 잠드소서! (보고 : 총회장 김덕화 목사)

복음신문 2001년7월 기사에서

캐나다 유학중인 정수환전도사의 보고

40년의 긴 세월 동안에 제일동포와 함께 걸어오신 존 메킨도 시목사가 6월7일 새벽 4시경에 소천하셨다.
 백인도선교사는 은퇴를 맞이하여 고국 캐나다에 금년 3월 22일에 귀국하였다. 일본을 떠날 때 부터 백목사의 건강상태는 좋지 않아서 출발 전에도 오사카에서 입원하였고 토론토에 도착하여서도 3번이나 입 퇴원을 반복하였다.
 그러한 투병생활 중에도 백인도목사는 부인 크라라베스 선교사와 함께 제일동포와 함께 해온 40년 간의 선교활동을 한국일보 5월7일 캐나다판과 라디오 인터뷰(5월10일)에서 뜨겁게 증언하셨다. 또한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하여 제 캐나다 한인 협회 인사들과 간담회(5월23일)를, 제일동포로서

현재 캐나다에 이민과 있는 김해천장로(토론토한인장로교회)와 함께 기획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족들의 메시지를 전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아름답게 제일대한의 동료들과 함께 마지막을 맞이한 것에 감사한다. 존은 사랑과 기쁨의 말씀, “깊은 신앙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헌신과 사랑, 평화”를, 우리 가족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간절한 기도와 함께 깊은 잠에 들어가셨다. 이러한 모든 말씀으로 부탁하시며 다른 것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우리들도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전도서3:11)

관서지방회

제72회 정기 총회 개최 지방회장에 허백기 목사를 선출



지난 5월 5일에 제72회 관서지방회 정기 총회가 개최되었다. 오사카부 및 교토부의 비상 사태 선언이 적용되는 가운데 Zoom를 사용한 온라인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전 총대 75명 중 68라는 높은 출석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Zoom방식에 의거하는 바가 많을 것이다. 단 이 온라인 개최를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했으며, 우편투표와 Zoom 투표기능을 병용시킨 하이브리드 선거의 준비, 온라인회의에 익숙하지 않은 총대들을 위한 사전 리허설, 보고서와 관련서류의 사전송부 등 구임원을 비롯한 준비담당자들의 다방면에 걸친 수고가 많았다.

임원개선이 있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회장 : 허백기 목사(교토남부),
 부회장 : 박영자 목사(토요나카 제일부흥) · 배양일 장로(교토),
 서기 : 김중권 목사(히라노), 부서기 : 김충락 목사(사카이),
 회계 : 모리 카즈유키 장로, 부회계 : 요시이 히데오 장로(교토)

그 외 결산와 예산, 각 교회에서 제출된 장로증원 청원 등이 결의되었다. 또한 함미라 전도사(후세교회)의 인허식이 거행되었다. 코로나사태 와중에서도 지혜와 최신기술을 동원해서 지체 없이 정기

총회를 이룰 수 있었음을 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다.

(보고: 허백기)

5월호 정정과 사과

2021년 5월호 한글판의 2면 타이틀 중 이름이 틀렸습니다. 「김순필」이 아니라 「김필순」이었습니다. 사과드리며 정정합니다.

전국교회여성연합회 정기대회 개최연기알림

전국교회여성연합회는 현장 제12조에 따라 2년에 한번 정기대회를 개최하여 임원 선출, 국장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63회 정기대회를 2021년 6월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사태가 좀처럼 수습되지 않는 현지점에서 대면식으로 개최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비대면(온라인)식으로 개최, 또는 연기할 것인지를 검토했습니다. 비대면으로 개최할 경우 임원선출 선거에 있어서 공정성과 공평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이 초래됩니다.

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2022년 6월까지 정기대회 연기, 또 선거에 대해서도 정기대회 연기에 따라 현 위원의 임기를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기대회 연기에 따라 불편을 끼치는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아무쪼록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회장 이현지, 총무 이시바시 마리에

2021年度 宣教師・神学生研修会案内

在日大韓基督教会に加入する宣教師と、神学校を卒業し伝道師考試を受験するために研修会を実施します。

- ・日 時 : 2021年8月29日(主日) 17:00 ~ 9月4日(土) 13:00
- ・場 所 : (講義・宿泊) 在日總會神学校(東京都足立区西新井本町4-5-1)
- ・履修課目 : KCCJ神学・宣教理念・憲法・規則、在日同胞史、KCCJ歴史、日本教会史・神学、エキュメニカル神学、KCCJ教会・礼拝・礼典・説教など、總會行政・年金・福祉など日本生活全般
- ・交通費・参加費(宿泊費) : 總會が負担します。
- ・志願や詳細は總會事務局に問い合わせください。(総幹事080-4377-3927)

※合宿ですが、コロナ感染症の状況によってZoom研修会に切り替えることもあります。その判断は8月初の状況によります。
 在日總會神学校 理事長 金日煥長老 校長 鄭然元牧師

公告 2021年度 牧師・伝道師考試及び宣教師加入考試

「2020年度牧師・伝道師考試及び宣教師加入考試」を以下のように実施します。詳細の案内と請願書などは總會のホームページ (<http://kccj.jp>) をご参照ください。

- 一. 日 時 : 2021年9月22日(水) 09:00~19:00
- 二. 場 所 : 在日大韓基督教会 東京教会
- 三. 申請(書類提出) : 2021年8月20日(必着) 總會事務局まで

四. 提出先 : 總會事務局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55
 電話番号 : (03) 3202-5398 FAX : (03) 3202-4977

神学考試委員會

委員長 金聖孝 書記 韓世一

(問い合わせTEL090-1907-2613)

어린이주일 특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과 함께」

大阪北部教会 마키노 준코(牧野順子)



2019년 성탄절 발표회



데, 처음으로 말씀을 배우는 어린이들도, 종일 하나님을 배우는 활동 속에서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익힙니다. 상당히 좋은 사이가 된 그들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내년의 약속을 주고받고 하는 모습에서 교사는 피로를 잊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보호자들에게 현저하게 느끼게 하는 가치 있는 경험입니다.

성장하면서 학교와 학원 등으로 인하여 바빠지면서 CS결석이 계속되면서 어린이와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약속을 변경하게 하면서 교회에 보내 주는 일도 많습니다.

이처럼 어린이 신앙 교육은 CS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한 교회 전체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교회 전체가 아이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일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향후, 어른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교회 참석이 어려울 것을 우려할 때, '어릴때 뿌려진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신 조영철목사님의 말씀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신학을 가르치는 것은 무리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은혜받았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어린이들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아이들의 마음에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가르치면서 결국 열매를 맺는 그 때를 기대하고 파종을 계속해 갑니다.

오랜 교사 생활 속에서 장난 꾸러기였던 학생이 목사가 되는, 부모와 자녀가 2대에 걸쳐 같은 CS출신, 같은 CS출신이 교사로 대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경험 할 때 CS의 시대는 확실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아직 자유롭게 교회에 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교회에 못 온다면 교회에서 찾아가자! <CS소식> 지를 발행하여 우송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예배를 본받아 목사님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기사를 게재하면서 한사람 한사람의 아이들 마음에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4명이라는 적은 숫자라도 기쁨으로 봉사하고 있는 교사에게 감사하면서 부담은 클 것으로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 해주셔서 2명의 교사가 주어 져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주님의 인도 따라 걸어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2001年度進級式 大阪北部教会学校

교회학교 2001년도 진급식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大阪北部教会 교회학교(이하CS)의 발자취를 사진으로 더듬어 볼때,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그리워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대 교사의 봉사에 의해 계승되어 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교사로서의 봉사는, 십대 후반의 청년회 시대에 보조 교사로 시작되었습니다. 회상해 보면 수많은 추억들이 시간을 넘어 선명하게 생각이 납니다. 특히 당시 교장 김형식목사님이 "교사는 작은 목회자" 라고 말씀 하셨을때 두렵기도 하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순진한 아이들의 마음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하는 들려주는 것이 얼마나 책임이 무거우며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되었습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이렇게 약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어 소중한 아이들을 맡겨 주신 일을 자랑스럽게 느껴졌지만 겸손하게 섬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에 힘입어 오늘날까지 오랜 동안 교사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CS에서는 예배, 학년 별로 분반이라는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분주할 때도 있지만, 주의를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상대방 쪽에서 보게 되는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과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때로는 엄숙한 예배를 체험하도록 교회력에 따라 1년에 몇 번씩 성인들과 함께 합동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방해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교사들은 긴장되지만 아이들은 잘 알고 있으며,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주위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성인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향한 설교의 배려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것입니다. 항상 아이들을 긍정적 자세로 배려하는 교회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매년 하기학교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기다려지는 행사중 하나입니다. 몇 년 전부터 난코(南港) 전도소 어린이들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처음 보는 아이들이고 가족들이 아이를 맡기는 것을 주저한다고 들었습니다. 짐을 떠나 생활하는 3일 동안 교사는 부모가, 형제·자매가 되고 친구가 되어 한 가족처럼 지냅니다. 서로 교회에서와는 다른 새로운 발견이 있는

讚頌歌委員会より「子どもさんびか」が発行されました。

主の祈り・使徒信条・交読文・十戒 集録 (いずれも韓国語・日本語) 一冊 1,000円 お問い合わせは総会事務局へ 電話 03-3202-5398



豊かな味、豊かな心。



妻家房

SAIKABO

代表取締役 吳永錫 (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 長老)

四谷本店: 東京都新宿区四谷3-10-25 Tel. 03-3354-0100